

■ 면세유 불법유통 왜 끊이지 않나

농기계 소유증·어업 허가증만 있어도 공급

경작·조업시간 조작해 주유소로 빼들려 4월현재 전남지역 불법유통 2,500건 적발

◇면세유 불법 유통 급증=4일 경찰에 따르면 올들어 4월 말 현재 전남지역 농·어민 지원용 및 해양 선박 관련 면세유 불법 유통 적발 건수는 2천500건. 이는 지난해 전체 적발건수 1천322건의 두 배, 2005년 100건에 비해서는 25배나 많다. 수법이 다양하다. 경작·조업 시간 등을 조작해 받은 면세유를 주유소로 빼들려가거나, 농기계·어선 등에 사용하면 면세유를 일반 차량에 쓰는 경우 등이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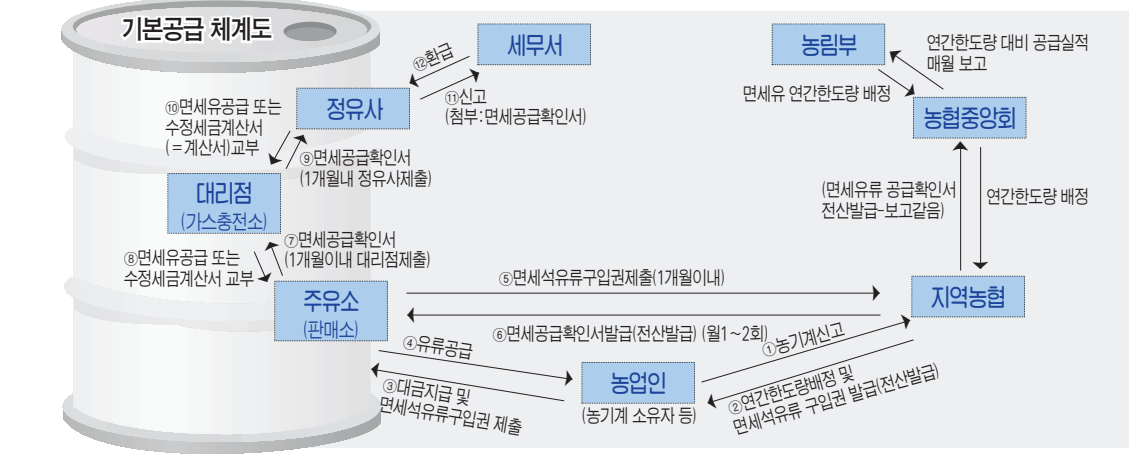
경찰에 따르면 어민 B(43·무안군 몽탄면)씨는 조업 시간을 조작해 부당공급 받은 면세유를 주유소에 넘겨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지난 2004년 3월부터 1년간 200회에 걸쳐 9천만 원 상당의 면세유 11만ℓ를 빼돌렸다.

또 내수면 어선을 소유한 P(33·무안군 청계면)씨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1년 동안 어선에 사용해야 할 1천700만 원 상당의 면세유 2만1천ℓ를 빼들려 자신의 차량에 불법 사용

한 혐의로 적발됐으며, 어민 K(30·무안군 일로읍)씨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올들어 2월 말까지 D주유소 사장 K(33·무안군 몽탄면)씨와 짜고 가족 명의로 된 내수면 어선 3척의 면세유 유통권 9만ℓ를 발급받아 건넨 뒤 약 8천만 원 상당의 경유로 돌려받아 회사 차량 등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불법 유통은 면세유 가격이 시중가격에 비해 크게 싸기 때문에 벌어진다. 현재 휘발유의 면세가격은 드림(200ℓ)당 13만980원이지만, 시중가격은 30만3천600원 정도에 달한다. 면세유는 24만3천600원인 반면 시중가격은 24만3천600원보다 14만1천200원이나 더 싸다.

◇배급·관리 어떻게 하기에? = 농협의 경우 농기계 소유증을 제출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도량을 책정, 유류구입권을 배분한다. 경운기 10마력의 경우 연간 사용시간을 171시간으로 계산해 휘발유의 경우



598.5ℓ 까지 나눠준다. 등유 598.5ℓ, 경유는 342ℓ 까지 배정한다. 수협은 어업 허가증·선적증서 등을 제출한 어민들에게 유류 카드를 발급해 준다. 200마력 미만 안강항 어선의 경우 연간 조업시간을 590시간으로 보고 11만8천ℓ까지 책정한다.

그러나 농·수협의 면세유에 대한 관리는 여기서 그친다. 농·수협 직원들에게 배정권한만 있을 뿐 단독 관리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면세유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시간간격을 제대로 설치한 농기계나 선박 등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수협의 경우 수산물 판매 확인

서·위탁판매 실적증명서·입출항 신고서 등을 확인해 유류구입권을 주고 있으나, 이러한 모든 절차가 책상에서 이뤄져 조업을 하지 않더라도 선박 소유주면 누구든 공급해주는 구조다.

입출항 신고서에 따른 조업시간 항구에서 기다리지 않는 한 어민 수백 명의 입출항 감시가 불가능해 조업시간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책은 없나=우선 농·수협의 자율적인 감시체계 가동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수협 직원들에게 면세유 불법유통 단속권을 부

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부정유통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고 보상금 현실화 등도 보완해야 할 대책이다. 갈수록 빼들리는 수법이 은밀해져 ▲수송 차량의 위치추적장치(GPS) 의무화 ▲면세유 주입 및 공급장치에 감시 카메라 설치 감시방법 개선도 필요하다.

농협관계자는 "이런 부정유통이 계속되면 2012년까지 연장된 면세유 제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농·수협의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농·어민들의 인식전환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목포=이상우기자 ish@kwangju.co.kr /이종형 기자 galee@kwangju.co.kr

특별기고



박희정

며칠 전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사진 한 장이 잊혀지지 않는다. 녹아내리는 좁은 빙산 위에서 북극곰 한 마리가 피로에 지친 모습으로 애처로이 먼 바다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였다.

우리는 가끔 언론매체를 통해 북극곰이 익사한다는 믿기 어려운 소식을 접한다. 특유의 수영실력으로 수십 킬로미터 정도는 헤엄쳐 건널 수 있는 북극곰이지만, 녹아내리는 해빙에서 녹지 않는 해빙으로 먹이를 찾아 100여 킬로미터 이상 헤엄칠 수밖에 없어 탈진과 저체온증을 겪고 큰 파도에 휩쓸려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이다.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유엔에서 정한 올해 주제는 '녹아내리는 빙하, 위기의 지구'. 기후변화가 극지방의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전 지구적으로

안 1990년도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내용의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여 2005년 2월 공식 발효시켰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상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감축 의무 국가에서 제외되었으나 주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세계 9위이고, OECD국가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율 1위 국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1999년부터 3차례에 걸쳐 기후변화협약 대응 정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고 있다. 산업계에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공장 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생산 시설과 공정을 도입

녹아내리는 빙하, 위기의 지구

로 확산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과 우려를 나타내기 위해 정한 주제다. 빙하가 녹는 현상은 인간에 의해 야기된 지구온난화현상을 말해준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농도는 산업혁명 이래 화석연료의 연소, 산림 파괴 등 인간의 여러 활동에 의해 많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1세기 지구온난화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소비양식을 환경친화적 제품 사용으로 바꾸고, 에너지와 자원 절약을 실천하며, 나무 한 그루라도 심고 가꾸는 것이 일상에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실천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는 분명히 진행 중이다. 올 2월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제4차 종합보고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지구온난화를 전 인류가 공동대처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장래에 우리는 공멸에 이를지도 모른다.

국제사회 및 정부차원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경제계에서는 온실가스 저감기술개발 및 투자에 더욱 힘써야 하며 가정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고 폐기물 발생이 적은 상품을 사용하는 등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더욱 펼쳐야 할 것이다.

하고 있으며,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통과 가정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장 중요한 대응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소비양식을 환경친화적 제품 사용으로 바꾸고, 에너지와 자원 절약을 실천하며, 나무 한 그루라도 심고 가꾸는 것이 일상에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실천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는 분명히 진행 중이다. 올 2월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제4차 종합보고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지구온난화를 전 인류가 공동대처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장래에 우리는 공멸에 이를지도 모른다.

국제사회 및 정부차원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경제계에서는 온실가스 저감기술개발 및 투자에 더욱 힘써야 하며 가정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고 폐기물 발생이 적은 상품을 사용하는 등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더욱 펼쳐야 할 것이다.

화순에 '물사랑 배움터' 문 연다

영산강 환경청, 오늘 환경의 날 맞아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박희정)은 5일 '제12회 환경의 날'을 맞아 화순에 '물사랑 배움터'(사진)를 개관한다. 물사랑 배움터는 화순군 남면 용리 2천206㎡ 부지에 연면적 538㎡의 ▲테마별 전시관 ▲영산강 ▲체험관 등으로 구성됐다. 테마전시관에선 물의 역사 등 12개 테마를 보여 주며, 영산강은 물의 특성 등 5개 테마를 상영한다. 체험관에서는 강우량 측정 등 모형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다. 개관은 매일 오전 10~오후 5시로 월요일은 쉰다(문의 061-373-5278)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개관식에 앞서 광주시와 공동으로 이날 오전10시30분 광주상공회의소 7층 강당에서 '제12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갖고 환경 보전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을 한다. 환경부장관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광주보건대 학생회장 노기환 ▲수질보호환경운동회



여수지회장 이형주 ▲전남도립대 교수 최병순 ▲(주)남광 대표 이승 ▲한국농촌공사 전남본부 이일선 ▲환경보전협회 광주전남지회 사무국장 최영률 ▲(주)지구환경서비스 대표 노광직 ▲(주)코엔텍 대표 박찬용 ▲영산강유역환경청 이광성 이필용 박남진 최현석 /김주경기자 jnews@

무등산 중머리재 약수 살균 처리

태양광 이용 광촉매 살균시설 설치

무등산 중머리재 약수터에 태양광을 이용한 광촉매 살균시설이 설치된다. 여름철이면 대장균 등에 오염되는 약수를 살균처리해 무등산을 찾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광주시는 "5천400만원을 들여 이달부터 다음달 말까지 중머리재 약수터에 태양광을 이용한 광촉매 살균시설(1기)을 설치하고, 청동원터 약수터에도 광촉매 살균시설을 설치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중머리재

약수터는 태양광을 이용한 광촉매 살균시설을 갖춘 첫 약수터가 된다.

시는 이와 함께 중머리재·늦재·교막재 약수터의 노후 집수정을 교체하고 보호철책을 설치해 수질 오염을 최대한 막기로 했다.

중머리재 등 무등산 약수터 13곳은 매일 5천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여름철이면 거의 모든 약수터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돼 음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주경기자 jnews@kwangju.co.kr

BUCK SH
SYSTEM ORDER MADE

전국대리점 정찰가격입니다

BUCKISH
유동점

구분요 이제는, 막춰입는 기념북으로!

전통 영국신사의 멋과 합리주의 정신 **벅쉬(BUCKISH)**의 품격을 만나 보십시오

기성복보다 저렴하고 맞춤복보다 기품있는 영국식 합리주의 맞춤정장, **벅쉬** 벅쉬만의 자랑 비접착 맞춤정장 기성복을 사자니 딱 맞는 사이즈가 없고 맞춤정장을 고집하자니 가격이 부담스러웠다면 이제 영국식 합리주의 맞춤정장, 벅쉬를 만나보십시오.

양동파출소, 안동개, 북개, 아세아극장, 유동

■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57-32 ■ 전 화 : 062-514-1741
■ 팩 스 : 062-514-1745 ■ 휴대폰 : 011-9603-1741

제주도바다

특색 고소하고 시원한 맛! **물회** '제주도 자리돔 축제'

회, 물회, 구이

점심식사 원영! 물회: 2만원 (2~3인 기준)

제주도의 명물 이제 광주에서도 맛보실수 있습니다.

자리돔은 바다고기로 6월~8월까지 제주도 근해에서 잡힌다. 특히 지방, 단백질, 칼슘이 많은 영양식이며 자리 물회는 비린내가 없고 시원하며, 구수한 맛을 내는 특징때문에 제주도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사랑 받고 있다.

● 위 치 : 화정동 서부소방서 사거리
● 단체예약문의 : ☎ 062) 385-0807

새롭게 단장한 신양파크호텔

Summer Wedding Festival

₩25,000부터 (7,8,9월에 한하여)

위 가격은 1인 식비를 기준으로 하며 10% 세금이 별도 부가됩니다.

● 대표전화 : 062)228-8000 ● 예약문의 : 062)228-4711~2

● 특전사항

예약 고객에 대한 특전사항

- * 하객 250명 이상 예약 시
 - 아이스카빙 무료 제공
 - 3단 케이크 및 축배용 샴페인(1병) 무료제공
 - 특수효과 연출 무료
 - 웨딩 캔들, 꽃장식(꽃길,주례단상 조화), 페덱스 및 페덱스상, 50% 할인
 - 웨딩 전일 또는 당일 허니문 룸 1실 1박 무료제공(사우나, 조식 2인 포함)
- * 하객 400명 이상 예약 시
 - 아이스카빙 무료 제공
 - 3단케이크 및 축배용 샴페인(1병) 무료 제공
 - 특수효과 연출 및 꽃장식(꽃길,주례단상 조화) 무료제공
 - 웨딩 캔들, 페덱스 및 페덱스상 무료 제공
 - 웨딩 전일 또는 당일 허니문 룸 1실 1박 무료제공(사우나, 조식 2인 포함)